가족형태에 따른 일본단독주택 공간구성의 특징
- 일본건축학회 作品選集(建築雑誌 増刊: 2006-2010)에 수록된 주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patial Composition of
Japanese Contemporary Detached House
- Focused on Family Composition -

이 정 미*
Lee, Jeong-Mee

Abstract

In this study, it was analyzed that, the way of securing publicity and privacy in family and type of public space of the Japanese contemporary detached house, by the composition type of family from one person home to four generation family home. Mostly the living room is made as open plan of LDK type. Mostly, the entrance hall is separate with living room. Even if the case of the entrance hall is connected with living room, it is planned to be recognized as entrance hall, by making entrance poach or connecting it with stair hall. In many case, the public space is designed as traditional Japanese style, such as wellhole style space (吹抜け), courtyard, and Japanese style room (和室). The Japanese style room is adjacent to living room, and used as the space of receiving guests. The wellhole style space and courtyard are recognized as the center of the house, and used as buffer space for ensuring privacy of each generation. The most different point between bachelor house and multi generation family house is another LDK space, living room or kitchen for parents' generation is made separately. Particularly there are many case of making separate small kitchen space, therefore it can be known that, the separation of kitchen space is recognized more importantly than that of living room. And there are many case of making separate entrance hall, two houses under one roof. The spatial composition like this can said as rational method of ensuring the privacy of each generation, and using the public space together as necessary.

Keywords : Spatial Composition, Detached House, Family Composition, Wellhole Style Space, Japanese Style Room

주요어 : 공간구성, 단독주택, 가족형식, 후키누케(吹抜け), 와시쯔(和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1.9%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양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아파트의 건설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27%¹⁾에 지나지 않는다. 즉, 주택보급률 100%를 상회하는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

람들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²⁾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아파트의 평면은 면적에 따라 실구성과 크기가 대체로 유형화되어 획일화된 형태로 건설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택유형의 편중화는 결국 소비자의 선호를 한정되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근자에는 땅콩집의 열풍에 따른 단독주택의 인기와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거양식의 제언³⁾ 등 주택관련 학계 및 업계의 다양한 연구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4인 가족 혹은 독신자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등의 세대를 아우르는 2세대, 3세대주택에 관련된 내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회원(주거자, 교신저자), 중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디자인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Jeong-Mee Lee, Dept. of Architectural Design, Joongbu Univ., 201, Daehak-ro, Chubu-myeon, Geumsan-gun, Chungnam, Korea. E-mail: hljmee@joongbu.ac.kr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No. 2012R1A1A3013926).

1) 2010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59.0%로 2005년에 비해 0.6%p 증가하였으며, 1인가구 비율도 2005년에 비해 3.9%p 증가하여 23.9%에 이른다(http://kostat.go.kr).

2)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주택호수 기준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82.1%에 달한다.

3) Byun, J. (2010). A Study on the Suburban Housing Complexes from an Ecological Point of View.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1(5), 83-90.

최근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세대가 동거하는 2세대주택 혹은 3세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주택보조금 정책⁴⁾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정책은 2007년 도쿄(東京)의 치요다구(千代田區)에서 시행한 차세대육성주택조성금(次世代育成住宅助成金)⁵⁾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점점 세분화되고 핵가족화 되어가는 가족관계의 세대구성 비율을 개선하고,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장기거주자의 확산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유례없이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문제 해결에도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현대주택 사례를 가족형태에 주목하여 고찰하고, 공용공간과 개실공간의 구성적 특징을 분석하므로 주택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본건축학회에서 발행되는 建築雜誌의 増刊作品選集(Selected Architectural Designs)에 수록된 주택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989년에 처음 간행된 작품선집은 매년 4월 발간되는 작품집으로 작가와 선고위원이 모두 일본건축학회회원으로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작품선집에 게재되는 작품은 건축계획 및 설계윤리성과 사회성, 역사성, 조형성, 독창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지부와 본부의 2단계 선발과정을 통하여 선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주택작품은 시대를 선도하며, 주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2006-2010)간 작품선집에 게재된 작품 가운데 단독주택으로써 도면이 첨부된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대상주택은 가족형태에 따라 독신자, 부부주택 및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1세대 주택⁶⁾과 부모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2, 3, 4세대 주택으로 구분하였으며, 먼저 주택의 위치 및 대지면적과 건축 및 연면적의 규모가 가족형태와 상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찰하였다. 가족형태에 따른 면적의 증가추이는 개실의 증가뿐만 아니라 세대간 생활영역의 공간구성과 상관성이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공용공간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른 공용공간과 개실공간과의 구성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한 주택 내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족 간의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를 확립하는 방식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建築選集 및 작품선정의 경위⁷⁾

작품선집의 기본이념은 ‘학회회원 작품발표의 장’으로, 매년 100작품이내의 출판작이 게재되며 규모에 관계없이 학회회원 개인의 작품으로 동등하게 다루어진다. 작품의 선발방법은 北海道, 東北, 關東, 東海, 北陸, 近畿, 中國, 四國, 九州, 海外의 지부전형으로 선정된 작품을 본부에서 최종 선발하는 2단계를 거친다.

전형은 지부에서 추천된 작품을 재평가하는 형식이다. 본부전형은 현지답사를 하지 않으므로, 현지조사를 한 지부전형의 평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며, 매년 출판되는 250내외의 작품 중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00작품이 선정된다. 본부전형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 (1) 각 지부 추천의 건축작품에 대한 평가는 존중한다.
- (2) 게재작품 수는 100작품 이내로, 우수한 작품을 게재한다.
- (3) 게재작품의 전형은 선고기준 5항목에 비추어 게재에 적합한 건축작품을 선정한다.

[선고기준]

- 1) 계획, 구조, 환경, 설비 등 재료·공법기술에 관한 설계윤리성
 - 2) 사회성, 역사성, 문화성으로 본 지역환경에의 적합성
 - 3) 외부공간, 내부공간의 양면에 있어서 조형
 - 4) 설계전반에 걸친 독창성
 - 5)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배려 및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대처
- (4) 특별한 관점에서 보면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작품도 고려한다.

위의 다섯 항목을 보면, (3)항 이외에는 과학적 사고과정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되어있으며, (3)항의 ‘조형’에 관한 평가는 감각적인 사항에 속하므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항 이외의 평가기준을 보면 일본건축학회의 작품선집에는 형태의 독창성이나 화제성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우나, 역으로 표면에서는 읽혀지지 않는 사상성과 상황의 인식 등이 평가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하여 각 지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전형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작품선정에 관한 공정성이 작품선집의 수준을 지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부에서 추천된 작품은 A, B, C, S의 각 평가가 붙여지며, A의 평가는 현장에서의 판단을 존중하여 큰 문제점이 없는 한 합격으로 한다. S의 평가⁸⁾는 5항목의 선고

4) 시나가와구(品川區)에서는 2세대주택을 구입할 때 90만엔을 다이토구(台東區)에서는 3세대주택에 12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5) 부모가 사는 곳으로 자식이 이사를 와 아이를 키우거나,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면 주택자금이나 월세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정책. 부모 세대가 치요다구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자식 세대도 주택 규모, 월세, 세대주 월 소득 등에 관한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6)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가 미혼의 자녀 그리고 부모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3세대 동거형태로 구분하지만, 일본의 경우 부부가 미혼의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는 1세대주택으로, 부모세대와 함께 거주할 경우 2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일본의 분류방법을 따르기로 한다.

7) 일본건축학회 『건축잡지·작품선집』의 권두에 매해 수록되는 「전형보고」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임.

8) 2008년 지부에서 S의 평가를 받은 작품은 본부전형에서 장래의 건축 동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지만, 특별한 관점으로 보면 개별부분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는 작품으로 한다.

본부의 주요작업은 지부전형에서 B, C의 평가를 받은 작품을 재평가하여 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

(1)지부평가 「A」 「S」의 건축작품에 대하여, 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아 심의한다. 「A」 「S」의 평가가 확정된 작품은 「게재후보」로 간주한다.

(2)지부평가 「B」 「C」의 건축작품에 대하여, 출석위원의 기명투표(30작품)를 한다.

(3)전형과정에서 게재후보에 이르지 못한 작품 가운데 전형대상작품의 추천을 받아, 추천자로부터 추천이유 등 설명을 받는다. 그 후 위원의 기명투표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작품들 중, 본 연구는 도면이 수록된 총 49채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III. 가족형태와 주택의 규모

작품선집에 게재된 총49개의 주택은 독신자주택 3채, 부부주택 9채, 1세대주택 25채, 2세대주택 9채, 3세대주택 2채, 4세대주택 1채의 분포를 나타낸다.

<Table 1>은 대상주택의 규모에 관한 표이며, <Figure 1>은 가족형태별 주택면적을 평균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독신자 주택의 연면적은 모두 70 m² 정도의 규모이며, 부부주택의 경우는 80 m² 미만의 소규모와 350 m²의 큰 규모 주택도 있으나, 총9주택 중 6채의 규모가 100~150 m²이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1세대주택에서도 60 m²의 소규모 주택과 300 m²의 대형주택이 있으며, 200 m² 내외의 규모인 경우도 6채가 있으나, 총25주택 중 14채가 100~150 m² 정도로 부부주택 규모와 비슷한 사례가 많다.

부모세대와 부부 그리고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2세대주택에서는 총 9채 가운데 5채가 200 m² 이상의 규모이며, 100 m² 미만의 주택은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데 적합한 계획 규모는 36~45평 즉 120~150 m²로 분석⁹⁾되었으며, 최근 GS건설이 개발한 2세대 임대수익형 평면의 전용면적은 114 m²이므로, 일본 현대주택은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할 때 다소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3세대 주택인 셀하우스(Cell House(47))와 신오오에주택(新大江の住宅(48))은 규모면에서 두 배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신오오에주택(新大江の住宅(48))은 기혼의 3자매가 생활하는 집으로, 보편적인 3세대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즉, 서로 다른 세가정이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는 형식으로, 각 가정의 실내 공간 점유면적은 113 m²정도이다. 이는 1세대주택의 평균

Figure 1. Housing Area by Family composition
(Total Floor Area)

연면적보다는 40 m²정도 작은 규모이지만, 중간정도 규모의 1세대주택과는 유사한 규모이다. 반면 부부와 두 명의 자녀 및 어머니와 할머니의 6인 가족이 생활하는 3세대주택인 셀하우스(Cell House(47))는 소규모 2세대주택(총 9주택 중 3채)의 규모(140 m²)보다 30 m²정도 크다.

이와 같이 <Table 1>과 <Figure 1>을 보면 대지의 위치 및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의 연면적은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독신자 주택의 연면적에 대해 부부주택은 두 배정도의 면적으로 구성되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1세대주택은 부부주택의 연면적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젊은 부부주택의 경우 출산과 관련하여 장래의 공간활용을 고려한 평면을 구성하고, 중년 부부주택에서는 자녀의 방문을 고려하여 여분의 실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부주택과 1세대주택의 경우 연면적의 규모는 유사하지만, 공간의 구성의 차이를 짐작할 수 있다.

반면, 평균규모로 볼 때 2세대주택은 1세대주택보다 50 m²정도, 3세대주택은 2세대주택보다 25 m²정도 큰 면적을 보이므로, 세대수의 증가는 단순한 개실의 증가 이외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주택은 아파트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위해 건립된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개인주택임에도, 가족형태에 따라 도심 혹은 외곽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상관없이 비슷한 연면적을 갖는다는 것은, 다수의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주택에서 필요한 공간 혹은 규모에 관한 보편적인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공용공간과 개실공간의 구성유형

부부와 두 세명의 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시대를 지나 일본의 가족형태는, 이혼율 및 아이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 독신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가상승에 따라 부모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2세대주택의 증가 등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본 장에서는 거실과 식당 및 주방, 현관 등의 구성형식 및 가족형태에 따른 공용공간과 개실공간의 구성유형에 관하여 고찰한다.

9) Yun, S., & Kim, J. (2007). Study on Development of Three Generation Family Type Apartment Pla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6(8), 43.

Table 1. List of Housing Area

(Unit: m²)

List of Houses			Site	Area	Building Area	Total Floor Area
Family Composition	NO	Name				
Bachelor House	1	Houae in kitamoto (2F, 2006)	Saitama	115.07	49.5	72.46
	2	Tall (3F, 2008)	Kanagawa	1,008.2	30.99	73.30
	3	Slanting cave (3F, 2008)	Tokyo	48.32	33.83	77.56
Couple House	4	The floating deck house (2F, 2006)	Tokyo	639.65	255.51	352.00
	5	Zaimokuza house (2F, 2006)	Kanagawa	110.29	43.56	82.78
	6	House in asagaya-minami (3F, 2007)	Tokyo	91.37	74.58	199.94
	7	Nukata house (2F, 2007)	Aichi	434.13	102.17	132.59
	8	Roofecture shioya (2F, 2007)	Hyogo	130.50	65.67	50.26
	9	I-house (2F, 2007)	Hirosima	265.83	107.58	154.23
	10	Eaves house (1F, 2008)	Saitama	297.61	119.57	119.57
	11	House in maebashi (2F, 2008)	Gunma	332.15	121.93	149.57
	12	Saginuma house (2F, 2009)	Kanagawa	94.34	51.97	114.10
One Generation House	13	IS (2F, 2006)	Hokkaido	285.96	128.63	238.36
	14	HP (3F, 2006)	Tokyo	50.12	30.03	61.67
	15	House at kudan (5F, 2006)	Tokyo	41.42	24.08	105.59
	16	House oot (2F, 2006)	Tokyo	166.23	73.73	104.49
	17	Tak (3F, 2007)	Tokyo	63.30	48.07	149.73
	18	House gt (3F, 2007)	Tokyo	165.30	82.41	201.36
	19	Yama (4F, 2007)	Tokyo	189.63	126.88	217.34
	20	House in yokoo (2007)	Hiroshima	491.06	238.53	336.53
	21	House in minamishouwamachi (2F, 2007)	Hiroshima	131.68	71.04	139.39
	22	Ito house (1F, 2008)	Mie	308.42	128.74	118.68
	23	House in nakatanicho (2F, 2008)	Hyogo	435.11	123.88	178.95
	24	House in Hachikenya (1F, 2008)	Hiroshima	671.52	125.67	120.19
	25	Closer house (1F, 2009)	Saitama	322.52	148.33	148.33
	26	House in hanna (2F, 2009)	Saitama	941.07	180.76	230.46
	27	Grappa (2F, 2009)	Hyogo	116.00	50.36	114.70
	28	Clover house (2F, 2009)	Hyogo	117.44	46.95	76.19
	29	House in katsuyama (2F, 2009)	Okayama	1,209.6	191.66	199.47
	30	Hover house (2F, 2009)	Hiroshima	446.06	194.32	216.85
	31	House in mure (1F, 2009)	Kagawa	555.02	146.01	128.19
	32	Oresen house (2F, 2010)	Hokkaido	312.86	63.73	107.82
	33	Ygm (2F, 2010)	Miyagi	180.76	80.70	112.63
	34	Gate house (2F, 2010)	Kanagawa	255.67	81.81	146.07
	35	Momonga (2F, 2010)	Tokyo	188.98	89.61	138.74
	36	Ich house (B1,3F, 2010)	Tokyo	79.26	47.38	164.89
	37	Stairs house (2F, 2010)	Shimane	343.24	110.46	142.66
Two Generation House	38	Fukuno-house (2F, 2006)	Toyama	374.36	217.04	328.47
	39	Cristal brick (3F, 2006)	Tokyo	126.55	81.36	224.98
	40	Large & small windows (M3F, 2006)	Tokyo	148.42	78.59	145.60
	41	House in otowa (3F, 2006)	kyoto	270.17	118.65	261.59
	42	House in ikaruga (2F, 2006)	Nara	464.10	165.48	249.13
	43	Open Ended House (2F,2007)	Kanagawa	281.00	112.28	142.39
	44	M's house shizuoka (1F, 2008)	Shizuoka	946.09	186.37	172.25
	45	House in norikura (2F, 3F, 2010)	Aichi	622.92	240.88	420.18
	46	Court House (1F, 2010)	Hirosima	347.37	148.28	145.59
Three Generation House	47	Cell House (1F, 2007)	Hokkaido	328.33	175.50	170.64
	48	3Bundled tubes (3F, 2009)	Kumamoto	618.10	157.55	340.92
Four Generation House	49	House in Nakaimachi (2F, 2006)	Kanagaw	355.05	133.28	221.10

1. 독신자주택

본 연구의 대상주택 총 49채 가운데 단층은 8채이며, 41채의 주택이 2층 혹은 3층 건물이다. 따라서 대부분 거실, 주방 등의 공용공간과 사적공간인 침실을 각각의 층으로 구분하여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있다. <Table 2>에서와 같이 독신자 주택에서도 공용공간은 모두 침실과 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본 현대주택에서 접객전용공간인 와시쯔(和室)¹⁰⁾가 시설된 주택<Figure 2>인 경우에도 와시쯔(和室)는 침실 및 공용공간과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모든 주택에서 공용공간의 상부를 보이드(VOID)¹¹⁾하여 개방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기타모토의 주택(北本の住宅(1))은 실내에 고정식 벽체가 없이, 목조 기둥만으로 실이 구획되며, 거실 및 욕실의 상부를 보이드(VOID)로 처리하므로 벽체가 없는 원룸의 입체적 표현을 완성하였다.

Table 2. Composition Type of Public Space and Private Space in Bachelor house

No	Space composition by Floor			LDK Type	Porch	Japanes Style Room(和室)
	1F	2F	3F			
1	Public S.	Room	\	LDK	Open	
2	Room	Public S.	Bath	LDK	Open	
3	Japanese style room, Parking	Public S.	Room	LDK	Stand-Alone	●

Figure 2. Space Composition of Bachelor House (Slating Cave (3))

2. 부부주택

출산 등으로 장래 가족구성원의 변화가 예측되는 부부주택은 규모 등에서 1세대주택과 유사점을 볼 수 있으며, 총 8채 가운데 한 집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중층건물이다. 따라서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용공간과 개실공간은 대부분 서로 다른 층에 구성되어 있으나, 1층에 예비실을 두고, 2층에 공용공간과 개실을 함께 구성한 주택도 볼 수 있다. <Figur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용공

간과 침실은 중정 등의 중성적 공간을 중심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상호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부부주택의 경우 거실이 식당 및 주방과 독립된 실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거실을 식당 및 주방과 하나의 영역에 구성하는 LDK형 배치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주택에서 공용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기위한 보편적인 방식이다. 소규모 독신자주택이 모두 LDK형인 것에 비해, 부부주택에서 DK 혹은 K의 구성이 많은 것은, 연면적이 독신자주택에 비해 2배정도의 큰 규모이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82.78 m²(5), 50.26 m²(8) 등의 소규모주택에서도 독립형 거실을 구성하는 것은 부부주택에서 거실은 단순한 공용공간이라기보다 취미실 등의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Composition Type of Public Space and Private Space in Couple House

No	Space composition by Floor			LDK Type	Porch*	Japanes Style Room(和室)
	1F	2F	3F			
4	Room	Room+Public S.	\	DK	O	
5	Room	Public S.	\	DK	O	
6	Library	Room	Public S.	LDK	O	
7	Public S.	Room	\	K	SA	●
8	Room	Public S.	\	DK	SA	
9	Spare R.	Public S.+Room	\	K	SA	
10		\	\	LDK	O	
11	Public S.	Room	\	LDK	O	●
12	K	Room+L	\	K	SA	

*SA: Stand-Alon, O: Open

Figure 3. Space Composition of Couple House (The floating deck house(4))

3. 1세대주택

부부세대와 미혼의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1세대 주택은 총 25채로 본 연구의 대상주택 가운데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낸다. 25주택 중 단층이 5채로, 대부분 공용공간과 개실은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부부침실과 공용공간이 1층에 구성되고, 자녀침실이 2층에 구성되거나, 자녀침실과 공용공간이 1층에 구성되고 부부침실이 2층에 구성되는 주택이 6채이며, 그 외의 주택에서는 자녀침실과 부부침실이 같은 층에 구성되며, 공용공간이 별도의 층에 구성되어있다. 가족 공유공간인 거실을 중심으로 부부침실과 자녀침실을 구분하는 것이 아

10) 와시쯔(和室:Japanese Style Room)는 무로마찌시대(室町時代) 이래 일본 전통주택 접객공간의 실내장식이 현대에 계승된 공간으로, 전통 일본식 불박이가구가 장식된 벽면과 다다미 바닥이 시설된 좌식생활공간이다.

11) 일본에서는 이와같은 공간을 특히 후키누케(吹抜け)라 하며 이에관하여는 5.2에서 다루기로 한다.

나라, 모든 침실을 한 층에 구성하며, 공용공간과 침실을 층으로 구분하는 공간구성은 침실과 침실을 인접하여 배치하지 않는 우리나라 주택과의 차이라 할 수 있으며, 가족공간과 접객공간을 구분하는 전통일본주택의 평면형식이 현대주택의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실공간과 공용공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형식은 <Figure 4>의 단층주택에서도 볼 수 있다. 단층의 이토주택은 중앙에 3개의 중정을 배치하여 부부침실과 자녀침실, 거실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관 및 거실과 접객 전용공간 와시즈(和室)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단층주택임에도 공용공간과 개실공간의 영역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Figure 4. Space Composition of One Generation House (ITO House(22))

전술한 바와 같이 1세대주택은 부부주택과 주택의 규모(연면적)는 거의 유사하지만, 부부주택에서는 독립된 거실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1세대주택에서는 대부분 LDK형의 개방된 공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Table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많은 중층의 주택에서 거실의 상부를 보이드(VOID)공간으로 구성하여, 수직적 공간분할을 이루는 공용공간과 개실공간의 상호관입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하는 공간구성의 특징을 볼 수 있다.

4. 2, 3, 4세대주택

본 연구의 대상 가운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2, 3, 4세대주택은 12채로 25%정도이다.

<Table 6>에서 보는바와 같이 2, 3, 4세대주택은 세자매가 함께 생활하는 신오오에주택(新大江の住宅(48))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부모와 자녀세대를 위한 각각의 거실, 주방, 식당 등이 있으며, 대부분 세대별 전용현관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공용공간의 구성을 보면 자녀세대는 LDK형의 구성이며, 부모세대에는 전용의 간이주방(K) 혹은 주방과 식당(DK)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용 현관과 주방이 구성된 부모세대의 생활영역은 자녀세대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

Table 4. Composition Type of Public Space and Private Space in One Generation House

No	Space composition by Floor			LDK Type	Porch*	Japanes Style Room(和室)
	1F	2F	3F			
13	Public S.	Room	\	LDK	SA	
14	Couple R.	Public S.	Child R.	LDK	SA	
15	Public S.	Room	\	LDK	SA	
16	Room	Public S.	\	LDK	SA	
17	Parking	Room	Public S.	LDK	SA	
18	Couple R. +Public S.	Child R.	\	LDK	SA	
19	Public S.	Room	Room	LDK	SA	
20	Couple R. +Public S.	Child R.	\	LDK	SA	●
21	Couple R.	Public S.	Child R.	LDK	SA	●
22		\	\	LDK	SA	●
23	Room	Public S.	\	LDK	SA	●
24		\	\	K	SA	
25		\	\	LDK	O	
26	Couple R. +Public S.	Child R.	\	LDK	SA	●
27	Child R.	Couple R. +Public S.	\	LDK	O	
28	Child R. +Public S.	Couple R.	\	K	O	
29	Couple R. +Public S.	Child R.	\	K/D	SA	●
30		\	\	LDK	SA	
31		\	\	LDK	SA	
32	Public S.	Room	\	LDK	SA	
33	Room	Public S.	\	LDK	SA	
34	Public S.	Room	\	LDK	SA	
35	Room	Public S.	\	LDK	SA	
36	Reception R.	Room	Public S.	DK	SA	
37	Public S.	Room	\	LDK	O	●

*SA: Stand-Alon, O: Open

Table 5. Location of Void Space

NO	Name	L	DK	B	Stair	Court
14	HP (3F)	●			●	
17	TAK (3F)	●			●	
18	House gt (3F)	●				●
20	House in yokoo	●				●
21	House in minamishouwa machi (2F)				● (hall)	
26	House in hanna (2F)	●				
28	Clover house (2F)	●				
29	House in katsuyama (2F)	●	●		●	
32	Oresen house (2F)	●	●	●	● (ENT)	
34	Gate house (2F)	●			●	
35	Momonga (2F)					●
37	Stairs house (2F)	●	●			

Table 6. Composition Type of Public Space and Private Space in Two, Three, Four Generation House

No	Space composition by Floor			LDK Type	Porch*	Japanes Style Room (和室)
	1F	2F	3F			
Two Generation House	38	G+Public S.	Room	LDK(1) L(2)	SA(1) SA(2)	●
	39	P.	Room	Public S.	DK(子) K(親)	SA(1) SA(2)
	40	BF P.	Public S.	Room	LDK(子) LDK(親)	SA(1) SA(2)
	41	P. (Room+ Public S.)	C. Public S.	C. Room	K(子) LDK(親)	O(1) O(2)
	42	P.+Public S.	Room	LDK(子) DK(親)	SA	●
	43	P.+Child+L	C.+K	DK(子) K(親)	O	
	44	Front: P.+Child Back: Public S.	C.+ Public S.	LDK(子) K(親)	SA	
Three Generation House	45	P. Public S. C. Child	Room Public S. C.	LDK(子) DK(親)	SA(1) SA(2)	●
	46	Left: P. Right: C.		LDK(子) K(親)	O(1) O(2)	●
Four Generation House	47	Front: G.+P. Back: C		LDK(1) LDK(2)	SA(3) SA(2) SA(1)	佛間
	48	Room	Public S. Room	LDK	O(1) SA(1) O(1)	
Four Generation House	49	C. Public S. P. Public S.+ Room	Room Room	LDK(1) LDK(2)	O(1) SA(2,3)	

*C.: Couple, P.: Parent, G.: Grandparent, SA: Stand-Alon, O: Open
1: One generation, 2: Two generation

2세대주택의 사례인 <Figure 5>의 1층은 부모의 생활공간으로, 2층은 부부의 생활공간으로 세대간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어 있다. 1세대주택의 경우 공용공간과 사적공간이 층으로 구분되지만, 2세대 이상의 주택에서는 이와 같이 세대 간의 영역을 분할하는 공간구성이 일반적이다. 이때 주로 1층은 부모세대, 2층이 부부세대의 생활공간이 된다.

단층주택의 경우 전면과 후면으로 세대간 거주영역이 분할되는데, <Figure 6>은 조모와 어머니, 부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3세대주택이다. 후면 50%정도의 영역을 부부세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전면에 조모와 어머니의 생활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과 중정이 있으며, 현관 화장실 및 수납공간 등으로 세대간 영역이 분할¹²⁾되고, 각 세대의 거실은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세대주택에서는 대부분 부부침실과 자녀침실을 인접하여 구성하지만, 2세대주택에서는 부모세대의 거주공간에 부부침실이 배치되지 않으며, 부모세대와는 모두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영역을 구분한다.

Figure 5. Space Composition of Two Generation House (House in otowa(41))
Figure 6. Space Composition of Three Generation House (Cell house(47))

<Figure 7>은 증조모와 조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4세대 주택이다. 전면에 자녀세대, 후면에 부모세대의 영역이 배치되어 있으며, 장방형대지에 일자형의 간단명료한 평면 구성을 나타내지만, 공용의 욕실과 和室을 중심으로 세대

Figure 7. Space Composition of Fourth Generation House (House in nakaimachi(49))

12) 부부세대의 영역에서 부부침실과 자녀침실도 공용공간 및 중정으로 세대간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있다.

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각각의 현관과 거실 및 주방과 식당이 구성되어 완결된 주거 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나, 욕실과 和室을 주택의 중심에 배치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이 공간을 통하여 각 세대는 가족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다.

V. 일본 현대주택 공간의 구성적 특징

1. 경계의 강화

1990년대 중반이후 일본의 주택은 가족구성원들의 개인화에 주목하여, 공용공간인 거실과 개실의 집합 즉, 「L+nB」라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주택이 출현¹³⁾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용공간이 소멸하고 개인공간의 집합으로만 이루어진 주택도 등장하였다¹⁴⁾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 주택들은 대부분 LDK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부주택인 경우에만 독립된 거실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2층 혹은 3층인 주택에서 공용공간과 개실공간은 층으로 분리되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LDK와 개실이 같은 층에 구성되는 중층주택과 단층주택에서도 각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이때 <Figure 3>의 후네노이에(舟の家) 및 <Figure 4>의 이토하우스에서와 같이 中庭을 중앙에 배치하므로 각 영역의 경계를 강화하기도 한다. 中庭은 영역의 경계 강화와 함께 매개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2, 3, 4세대주택에서 中庭의 구성은 세대간의 경계를 강화하며, 각 세대의 독립된 영역을 구성하기 위한 공간구성 방식이 된다.

2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Figure 8> 단층의 시즈오카M주택(静岡M邸)은 工字형의 배치로 전면의 부모세대 영역과 후면의 자녀세대 영역이, 테라스와 욕실로 연결되어 있다. 부모세대의 영역에는 세면실과 간이주방이 계획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부모세대의 영역에서 함께 거주하는 손자는 중앙의 욕실 및 테라스를 통하여 자녀세대와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바와 같이 일본 현대주택에서 공용공간은 가족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간임에도, 개실공간과의 용이한 접근성 등 상호관계적인 측면보다 독립성의 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관의 구성 형식과도 상관성이 있는데, <Table 2, 3, 4,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주택에서 현관이 다른 공간과의 연속성이 없는 독립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 혹은 3층의 주택에서 현관은 주로 계단실과 함께 주택내의 순환동선을 형성한다. 따라서 독립형 현관의 주택에서 거주자는 공용공간을 거치지 않고, 개실공간에 도달할 수 있다. 또

Figure 8. Space Composition of Two Generation House (M's house shizuoka(44))

한 <Table 6>을 보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2, 3, 4세대주택 12사례 가운데 모든 세대가 공용의 현관을 사용하는 주택은 3집에 불과하다. 이는 전용현관의 구성이 세대별 독립된 생활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를 위한 이중적 공간구성

지금까지 살펴 본바와 같이 일본의 현대주택에서 공용공간과 개실공간은 중층의 주택에서는 층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단층의 주택에서는 영역의 분리로 각 공간의 독립성 즉,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주택에서 가로라는 외부공간과 주택의 관계를 설정하는 현관을 공용공간과 연속성이 없는 독립형으로 구성함으로써, 외부공간에 대해 주택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함과 동시에 주택 내에서도 개실공간에 대한 공용공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으로 대변되는 젊은부부와 어린자녀로 구성되는 1세대주택의 경우 부모의 생활영역에서 자녀를 관찰할 수 있는 실의 구성이 필요하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2, 3, 4세대주택에서는 세대 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가족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실의 상부를 후키누케(吹抜け)라는 보이드(VOID) 공간으로 구성하거나<Table 5>, 공용공간과 개실공간의 경계에 中庭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수법을 채용하고 있다. 후키누케(吹抜け)는 복수의 층을 갖는 건물에서 2층 이상이 개방되는 높은 층고의 공간을 말하는데, 계단이나 홀처럼 완결된 실이 아니라 상층이 다른 부분에 결합된 개방적인 공간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된다. 후키누케(吹抜け)는 대부분 거실 및 주방, 식당 혹은 계단실과 中庭 등의 공용공간에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용공간과 개실공간의 관계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어린자녀가 있는 1세대주택과 소규모 독신자주택 및 부부주택은 후키누케(吹抜け)의 구성과 함께 각 실의 경계를 최대한 약화시켜, 공간의 연

13) 内田青蔵의 4인(2008). 圖説・日本住宅史. 鹿島出版, p. 174
14) Cinn, E., & Baek, J. (2012), A Study on SANAA's Domestic Spaces for Change of Modern Nuclear Famil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8(8), 84.

a) 3Bundled tubes (49)

b) House in Nakaimachi (48)

Figure 9. Wellhole Style space(吹抜/力)

속성이 지각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반면 가족이라는 연대감의 형성은 중요하지만, 상호간의 시각적 연속성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2, 3, 4세대주택의 경우 창각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만,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후키누케(吹抜け)가 중층의 주택에서 공용공간과 개실공간 혹은 세대간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를 확보하기 위한 공간구성 이라면, 중정은 단층주택에서 공용공간과 개실공간 그리고 세대간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를 확보하기 위한 공간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토하우스(Ito House)는 주택의 중앙에 세 개의 중정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일차적으로는 공용공간과 개실공간 혹은 각 개실간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함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며, 한편으로는 중정을 에워싼 경계요소가 대부분 유리로 구성되므로 두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차단하지만, 투명한 유리를 통한 각 공간의 시선은 연속되어 가족간의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다.

a) Cell House (47)

b) Ito House (22)

Figure 10. Courtyard

3세대주택인 셀하우스(Cell House)에서도 각 세대의 경계에 중정을 배치하므로, 세대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다. 특히 1세대인 어린자녀와 부부의 생활영역에서는 중정 측의 창호를 전면 유리로 구성하여, 시각적 연속성을 유지하며, 인접된 부모세대의 창호는 최대한 억제하여, 필요에 따른 시각적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中庭의 구성을 통하여 각 영역은 프라이버시와 함께 가족의 연대감을 지각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도 있다.

VI. 결 론

1970년대 이후 일본은 핵가족으로 상징되던 가족형태가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하였으며, 가족공유공간인 거실이 사라지고, 외부에서 직접진입이 가능한 출입문과 목욕탕 등이 시설된 자립적 개실의 집합체 형식 주택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독거노인의 증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2, 3세대 주택을 장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현대주택 49채를 대상으로 가족형태에 따른 공간구성의 특징을 고찰하였으며, 가족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구성의 특징을 볼 수 있다. 특히 2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각 세대 전용의 주방 및 현관의 구성으로 세대간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며, 독립된 세대간의 영역은 가족 공유공간인 거실을 중심으로 통합된다. 거실의 중심성은 中庭 혹은 후키누케(吹抜け)라는 보이드 공간의 구성을 통하여 확립되는데, 中庭과 후키누케는 입체적 공간의 연속성을 지각할 수 있는 일본 전통주택의 공간요소로써 현대주택의 공간에 계승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4인가족의 이상적인 생활공간으로 계획된 아파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영향으로 소형아파트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형아파트에서는 세입자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구성 등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전통공간요소가 계승된 3세대 혹은 4세대동거형 주택에 관한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주거공간의 사회적 역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축소하는 가구구성원을 위한 주거공간의 제안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확대가족을 위한 주택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Byun, J. (2010). A Study on the Suburban Housing Complexes from an Ecological Point of View.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1(5), 43-46.
2. Cinn, E., & Baek, J. (2012). A Study on SANAA's Domestic Spaces for Change of Modern Nuclear Famil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8(8), 83-90.
3. Yun, S., & Kim, J. (2007). Study on Development of Three Generation Family Type Apartment Pla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6(8), 39-46.

접수일(2012. 10. 26)

수정일(1차: 2012. 12. 4)

게재확정일자(2012. 12. 14)